

학교보건의 발전을 바람

李 恩 淑

學父母(서울 九宜洞)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이 되면 산과 들은 더욱 푸르려지고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세상을 만난듯 기뻐하며 어린이날의 노래를 즐기 부르며 노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요 꽃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낳고 선생님은 기르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실감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아 길러 보니 정말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는 항상 교육 시키기에 수고 하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양호 선생님의 고생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장래 국가의 재산이요. 기둥이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학교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나 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 이면서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건

강도 어려서 부터 지켜야 하며 특히 위생적인 습관은 어려서 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들 생활의 1/3을 보내는 장소로써 지식과 덕을 쌓고 튼튼한 몸으로 자라기 위해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건강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이 키우기 위하여 선생님과 학부모는 협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학교 당국에 그리고 양호 선생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1) 보건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국민학교에서 부터 전 학교생활 즉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에 알맞은 보건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위생, 정신위생, 영양교육, 공중위생, 환경위생 등의 교육을 시킨다면 깨끗하고 명량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여러번 말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 이라고 봅니다. 또 예를 들어 편식하는 아이들도 선생님께서 영양에 대해 말씀하시고 멀치를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 아이들은 꼭 먹도록 노력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어려서 시켰을때 효 과적 이라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건 교육은 배워서 실천하고 또 습관화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예방접종에 대해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날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장티부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호선생님께서서는 주사기 하나와 바늘 하나로 몇명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었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양호 선생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뒷받침은 없고 전염병 유행 시기는 닥쳐오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그러한 방법으로 주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양호실에 대한 시설과 관심은 빈약해서 그 중요한 기능을 다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주사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지마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므로 똑같은 주사 바늘을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 소독하지 않은 채 쓰다가 유행성 간염에나 걸린다면 더욱 학부모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면서 불안하더군요. 정말 주사기와 바늘의 소독은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 사람마다 주사할 때 바늘이라도 바꾸어 쓸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예방주사를 실시할 때 예방주사 맞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학교도 있겠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도 모르는 수가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예방주사의 필요성 또는 혜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면 예방주사를 기피하지 않고 모두 참여 하겠고 어른이 되어서도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예방 접종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신체검사에 대해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검사는 봄철이 되면 학교의 연중 행사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진찰해야 하므로 양호 선생님께서서는 아주 힘들겠고 초청받아 오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몹시 피곤 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건강 기록 카드를 잘 기록하여 비치해 놓고 각 학급에 체중기를 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체중은 측정하여 체중의 증감은 그래프 용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른 급우들과도 비교 하면서 흥미를 갖도록 하며 양호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1개월에 1회 혹은 2개월에 1회정도로 조사해서 체중이 계속적으로 저하하거나 자주 결석하는 학생, 성적이 저하되는 학생 등등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다시 양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관찰 하신 후 건강기록 카드에 기록해 두었다가 이상과 같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자세히 진찰받은 후 다시 학부모와의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진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이 희박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교 급식에 대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집에서 잘 먹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급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몇 일전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얘기를 듣고 우리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하던 중에 얘기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해 보니 영양부족 같았습니다. 그 집에는 물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노동하는 아빠가 몇 일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국수만 먹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 아이는 국수가 싫다고 굶고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먹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볼 때 학교 급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전체 아동들에게 빨리 실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이 윤택한 집에

서도 영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영양부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급식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편식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음식을 먹으므로 흥미를 갖아서 편식하는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습관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따라 식사 하게 되면 좋지 못한 식습관이 있는 학생도 좋은 식습관이 생길 줄로 압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학부모들이 나와서 협조해서 일하느라 어려운 일이지만 무난히 학교급식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곳에서 시범적인 학교급식을 실행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부는 잘 하는데 몸이 약해 자주 병에 걸리게 되면 더욱 안되겠지요.

이상 4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점 등을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양호교사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장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뒷받침 해 주시면 양호 선생님들께서는 흥미를 더욱 가지게 되고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교사들 하고 이야기 하는 기회가 있을때 양호 선생은 별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호 교사는 너무나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부의 하는 일은 하루종일 바빠도 표시가 없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양호 교사의 일도 표시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모든 사고의 방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아주 어려운 일이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양호 교사를 모시고 있는 학교는 그만큼 학교가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평가해도 잘못

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호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당국에서 협조와 뒷받침이 없으면 도저히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 교육이 필요한데 학생들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으며 그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겠는데 담임 교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서 할수 있겠습니까? 또 일반교사들께서 양호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교사들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일은 양호교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학교당국 그리고 일반교사 여러분과 우리 학부모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물론 학교에서 지시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지 협조할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러한 학부모님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몹시 바쁘지만 아이들에게 관계된 일이라면 웬만한 일은 희생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점차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은 더욱 가까워져야 하겠으며 건강을 말고 체지는 양호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학부모는 물론 사회의 성인 모두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항상 의식하고 어느 곳에서나 모범이 되는 행동과 탈씨를 사용해야 하겠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푸른 5월의 나무들과 같이 푸르고 울창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은 아낌없이 아이들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